



# 국제사료곡물 전망

## □ 미 국 □

다음은 1975년 11월 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1976년도 전 미국농업관측회의에 James G. Naive가 보고한 미 농무성의 가축사료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세계 조곡(粗穀)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초기의 기대에는 어긋났다.>

1975년의 세계조곡(粗穀)생산량은 약 590백만톤으로 추산되며 이는전년대비 3%의 증산이다. 그러나 곡류를 사료로 이용하는 국가중 생산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 <특히 소련과 서구>는 가축을 감축하거나 급여량 조절 혹은 수입의 증가등의 형태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다. 다음은 각 나라별 생산 실적이다.

### ■ 동 구 ■

동구의 소맥과 粗穀의 1975년 생산량은 85백만톤으로 예상되며, 1974년 대비 5%의 감산이다. 이중 55백만톤이 粗穀 30백만톤이 小麥이다.

한편 1975년 생산계획령에서 감산된 약 4백만톤에 대하여는 돼지와 닭의 두수조정 粗飼料증산, 감자의 증산, 급여효율의 향상, 농후사료기축의 방목 등으로 상쇄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서 구 ■

1975년 서구의 粗穀생산은 82백만톤으로 1974년에 비하여 3% 감산이다. 감산의 주요원인은 일기불순 재배시 과다강우 후기의 한발등에 기인한다.

粗穀이 EC국가에서 감산된데 반하여 非 EC 국가로서 주로 스페인에서는 기록적인 大麥의 풍작으로 1백만톤이 증산되었다. 한편 이지역에서의 부족량의 대부분은 전년이월량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남아프리카의 粗穀 생산은 74~75년 대비 5% 감산인 10백만톤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 지역의 75~76년 粗穀수출량은 작년대비 10%가 증가한 4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粗穀생산은 작년대비 26%가 증가한 1백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나라의 75~76년도 수출은 6.4백만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74~75년대비 25%가 낮은 것이다.

1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의 粗穀수확은 일기불순으로 지난해 수준인 4.7백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 캐나다 ■

1975년 粗穀수확은 18백만톤으로 보이며 흉년인 1974년에 비하여 12%의 증산이다. 한편 전국의 75~76년 국내사료 수요량은 5~10%가 증가한 13백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 ■ 소 련 ■

소련의 1975년 곡류생산은 160백만톤으로 보이며 이 물량은 1974년 대비 35백만톤의 감산으로서 1975년 생산계획과 비교하면 55백만톤의 감산이다.

이 160백만톤은 소맥이 75백만톤, 粗穀 73백만톤 그리고 기타 穀類가 12백만톤이다. 이러한 감산에 상에 대처하여 소련은 최근 75~76년도 국내곡류수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료용 穀類는 74~75년도의 106백만톤 수준에서 최소한 5%의 절감을 하지않는가 내다 보인다.

소련은 1975년 7월부터 1976년 6월에 걸친 1년간의 총곡류도입을 약 27백만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은 백만톤에 불과하다. 금년의 흉작을 메꾸기 위한 수입은 72~73과 73~74년의 경우와같이 76~77년에 들어가는는 연속될 것으로 보인다.

1975년 7월부터 1976년 9월까지의 15개월에 소련이 도입할 곡류의 총량은 30백만톤을 초과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1975년 7월부터 1976년 9월사이 선적할 물량으로 소련이 외국에서 구매한 양은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미국에서 구매한 13백만톤을 합하여 25백만톤에 달하고 있다.

## 옥수수 생산 《미 국》



미국 일리노이주 Saybrook의 Herman Warsaw 씨는 1975년산 옥수수 수확에서 정보당 21톤 18kg 을 생산하여 종전의 세계기록 보다 1.9톤이 많은 신기록을 수립했다.

Warsaw 씨는 이 지역에서 286정보의 밭에 14년째 계속 옥수수만을 심어오고 있는데, 75년에는 4월 22일에 휴폭(畦幅) 97cm로 하여 정보당 80,000알의 씨앗을 뿌렸으며 질소 질 980kg, 인산질 560kg, 가리질 700kg, 패지거름 50톤씩 시비, 완전 기계수확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전체의 평균수확량은 1971년에 5.5톤, 72년 6.0톤, 73년 5.7톤, 74년 4.4톤 75년 5.4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단위 수확량을 보면 모두 미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져 중공이 미국의 30%,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40%, 남아프리카 25%, 볼란서 74%, 멕시코 18%, 루마니아 45%, 유고슬라비아 50%, 헝가리 58%, 이태리 80%이며 한국은 정보당 1.6톤으로 미국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鷄卵消費促進 基金

《미 국》

미국의 계란생산자들은 계란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각출안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 따른 자금각출 규모는 한케이스(360개)당 5센트다. 75년의 미국인 1인당 계란 소비는 275개로 기록적 저수준이었는데 이는 74년의 287개, 1945년의 402개와 비교할때 상당히 감소된 숫자이다.

계란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먹고 계란과 콜레스테롤과의 관계가 논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일부 학설이 한때 밝혀진적이 있으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과 계란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있다.

미 농무성은 각출되는 기금은 계란연구, 소비자 교육, 계란 판매활동 강화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전국각지의 계란 거래소에서 판매자들로부터 각출된다.

기금각출안은 지난5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전국 계란 생산자들의 찬반 투표에 붙여졌는데, 계란생산자중 투표에 참가한자가 86%, 이중 찬성표는 73%로서 법정통과선인 3분의 2를 훨씬 넘었다.

전 미 계란생산자연합(UEP)의 Al PoPe 사무국

장은 투표결과가 예상보다 좋았다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73%에 달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우드·캐롤라이나등 일부 주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곳도 있다.

미국 가금 계란연구소의 Lee Cambell씨는 이번 투표결과를 볼때 미국의 계란생산자들이 계란소비 추진계획 실천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계란소비가 1년에 한사람당 8개 감소할 경우 양계업자들은 5,920만 달러의 판매액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계란소비촉진기금은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위원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 食肉값 下落

〈일 본〉

일본의 수입식육값은 연말의 성수기를 지나자 대량 수요처인 햄, 소시지메이커들의 매입량이 격감하여 동경시세는 거의 명목가격으로 변하여 5주전에 비해 떨어진 품목이 많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중 돈육은 부위마다 수급의 차가 현저, 미국산 보스턴베트(목살)는 체화기미가 보여 킬로당 30圓(4%)가량 내리고 있는 반면 캐너디안 로스(다리살)는 킬로당 50圓(4%)가량 내렸다. 한편 닭고기는 미국산이 수요기를 앞둔 휴한기여서 말단 소비부진으로 킬로당 60~65圓(9%)가량 떨어지고 있다.